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준원 / 경향신문 / 260608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차기 국무총리에 한성숙 지명	정치	
2	뉴욕증시 반도체주 급락...하루 만에 시총 2000조원 증발	경제	

(1)기사/뉴스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차기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한 지명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 취임하면 2006년 취임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정보기술(IT) 업계 출신 인사가 총리로 지명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청와대에서 총리 후보 지명을 발표했다. 그는 “IT 기업 대표와 중기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인공지능)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책임자로 기대된다”며 인선 배경을 전했다.

강 실장은 “한 후보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리더”라며 “민간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AI 대전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속도와 성과, 현장을 강조하며 중소벤처와 소상공인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그 결과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이러한 후보자의 혁신 성과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기회가 더해진다면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가 견인한 한국 경제의 성장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의를 표한 김민석 총리의 후임을 물색해왔다. 강 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물망에 올랐지만 한 지명자가 최종 낙점됐다. 1967년 경기 의정부에서 태어나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한 지명자는 IT 전문지 기자 출신으로 엠파스를 거쳐 2007년 네이버의 전신인 NHN에 입사했다. 2017년 여성 최초로 네이버 대표이사로 선임돼 네이버페이와 스마트스토어 등 서비스 성장을 주도했다. 미국 경제지 포천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 50인’에 2017년부터 4년 연속 선정됐다.

이재명 정부 초대 중기부 장관으로 정책 기조를 기존 중소벤처기업 보호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했다. 대표 정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는 6만3000여명이 신청해 정부 공모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에서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가 국회 인준을 받으면 노무현 정부의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한다.

요약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차기 국무총리로 지명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총리 후보 지명을 발표하며, IT 기업 대표와 중기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AI 대전환을 완수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책임자로 기대된다며 인선 배경을 전했다. 한 지명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 취임하면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2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2)기사/뉴스요약

미국 뉴욕증시에서 인공지능(AI) 열풍을 주도해온 반도체주가 5일(현지시간) 일제히 급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 약 1조3000억달러(한화 약 2026조원)가 증발했다. 브로드컴의 AI칩 사업 성장세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확산한 데다 예상보다 강한 고용지표에 따른 금리 상승 우려까지 겹치면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AMD 등 주요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에 상장된 주요 반도체 종목 30개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이날 10.3% 급락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쳤던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하루 낙폭이다. 반도체주 전반에 대한 매도세는 브로드컴이 이번 주 발표한 분기 실적에서 맞춤형 AI 칩 사업 수요가 시장의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이후 본격화됐다. 이날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 기업인 엔비디아는 약 6% 하락하며 시가총액 3000억달러 이상이 줄어들었다. 마이크론은 13% 급락해 시가총액 약 1500억달러가 사라졌다. 최근 상승세를 주도했던 마벨 테크놀로지는 17%, AMD는 11% 각각 하락했다. 브로드컴 역시 8% 가까이 떨어지면서 이틀간 낙폭이 20%에 육박했다. 로이터는 이번 매도세가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초대형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고평가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커지는 가운데 나타났다고 짚었다. 스페이스X가 상장에 성공할 경우 기업가치는 1조7500억달러(약 2728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미국 고용지표가 5월 들어서도 예상 밖에 회복력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 확산한 것도 투자심리를 급속도로 위축시켰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5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7만2000명 증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8만명 증가를 내다본 전문가 예상치(다우존스 집계 기준)를 큰 폭으로 웃돈 수치다. 트리플D트레이딩의 데니스 덕 트레이더는 “그동안 투자자들은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무작정 매수했지만, 그런 전략은 오늘 끝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급락을 업황 악화보다는 과열에 따른 조정 성격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이번 급락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후로는 여전히 73% 상승한 상태다.

요약 : 미국 뉴욕증시를 주도해 온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락하며 금요일 하루 만에 시가총액 약 1조 3000억달러가 증발했다. 주요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0% 이상 하락하며 202년 3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하락 원인으로는 브로드컴이 분기 실적 발표에서 AI칩 수요가 시장의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지적된다. 또한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 밖에 회복력 있는 모습을 보이며 미국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 확산된 것도 투자심리를 위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백 래시	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해 나타나는 반발 심리 및 행동을 이르는 말로, 사회 변화에 따라 기득권층의 영향력이 약해질 때 그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다.	시사상식사전
2	백 룸	노란색으로 꾸며진 일상적인 공간 사진으로부터 시작된 괴담으로, 호러 마니아들 사이에서 이미지가 공유되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무한한 공간에 갇힌다'는 도시 전설로 발전한 개념	

●사설스크랩 OR 클로징멘트

기사: 또, 털렸다 / 송진식 / 사회

평온했던 주말,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문자메시지가 날아왔다. 이번엔 CU편의점택배를 운영하는 BGF네트웍스다. 이틀 전에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티빙(TVING)’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너무 잦은 일이라 별로 놀랍지는 않았다. 티빙 때는 유출된 정보가 이름·성별·생년월일 정도였다. 이에 더해 CU편의점택배에선 휴대전화번호·집주소·e메일 등이 더 털렸다. 어쩐지 못 보던 대리운전 스캠과 정체 모를 피싱메시지가 날아들더라니. 그런데 ‘심증’은 있어도 ‘물증’은 없다. 유출사고를 낸 업체들에 책임을 물을 생각도 물론 없다. 20년 넘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했다. 포기한 지 오래다.

그래도 매번 적응이 안 되는 건 놀랍도록 ‘무성의한’ 기업들의 태도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 기업도 매뉴얼을 충실히 따르는 추세다. 문제는, 그게 전부라는 것이다. 사후약방문식의 매뉴얼이 나온 뒤 유출사고는 줄었는가. 피해가 더 회복됐는가. 그렇지 않다. 기업들이 매뉴얼을 충실히 따르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72시간 이내 유출사고 통지’는 최근 상당히 잘 지켜지는데, 이를 어겼을 경우 법정에서 과실로 입증되기가 비교적 쉬워서다.

기업들이 유출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나 e메일을 보면 형식이나 내용도 판박이처럼 똑같다. 매뉴얼을 따른 결과이기도 하고, 매뉴얼만 베낀 결과이기도 하다.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접수나 구제를 위한 신고센터의 전화번호를 안내하게끔 되어 있다. 피해접수라며 안내된 티빙 번호로 전화했더니 “피해접수는 전화로 안 된다. e메일로 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CU편의점택배 피해접수 번호로 전화해보니 “비밀번호를 변경해달라”는 말이 전부였다. 유출된 정보도 이름·전화번호 등까지는 알겠는데 CI·DI가 뭔지, ‘비밀번호(단방향 암호화)’는 무슨 의미인지 설명도 없고 안내도 없다. 이런 요식행위들을 보자면 사고대응 매뉴얼은 사고대응 ‘면죄부’로 불리는 게 더 합당해 보인다.

반복되는 유출사고를 보면서 안타까운 점은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고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업들 태반은 해킹 등 외부 공격으로부터 정보를 지키고 보존할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기를 쓰고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정부에서 이를 뭐라 하면 처음엔 e메일 정보 정도만 수집했다가 서비스 통합이니 추가 혜택이니 하며 야금야금 추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곳이 적지 않다. 그게 돈이 되거나, 돈이 덜 들거나여서다. 깃털만큼 가벼운 처벌 문제도 하루이틀 나온 게 아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이 있는 나라도 아니어서 피해자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비식별정보라도 쌓이고 쌓이면 식별정보가 될 수 있다. 최근 경찰에 검거된 한 해킹조직은 국내 공공기관 사이트 등 6곳을 해킹해 얻어낸 개인정보를 조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융자산을 빼돌렸다. 인공지능(AI)이 고도화되면서 AI를 활용한 해킹이 어디까지 진화할지도 알 수 없다.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도 어느 시점부터는 멈춰 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는 본인 확인 수단으로 공공기관에서 폭넓게 쓰이고 있다. 정부가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기를 바라지만, 최근 발생한 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내부 관계자의 인식 수준이 우려스러워 있는 그대로 통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 참고로 이 사이트에서는 가입자별로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고가 나서 부담스럽다. 그리고 이 정도 개인정보는 이미 다 유출됐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준원 / 경향신문 / 260609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장동혁 “일부 관내 사전투표소 ‘득표수 완전 일치’ 사례 발생” 부정선거 가능성 제기	정치	
2	이란·이스라엘, 휴전 후 첫 본토 공습	국제	

(1)기사/뉴스요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인천광역시장 선거 송도 1동과 송도 2동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렇게 유 후보와 박 후보의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할 확률이 5억9000만분의 1”이라고 말했다. 사전투표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전남 통합시장 선거에서는 두 후보의 득표수가 똑같은 지역이 무려 10곳이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선관위는 위원회 일치라는 말만 할 뿐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확률은 사실이 아니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실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그래서 부정선거다’ 이견 아니고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선관위가 처음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밝힌 투표소는 서울지역 14곳에 불과했다”며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전국 67곳으로 늘어나더니 전날에는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가 무려 140곳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해결책으로 특검, 재선거, 그리고 사전투표 폐지를 제안했다. 그는 “결국 특검밖에 답이 없다”며 “과거 특검들처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자신들이 추천하는 특검에게 맡겨서는 안되고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에게 맡겨야 국민도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전국 재선거밖에 없다”며 “선관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번 선거가 무효임을 선언한 후에 재선거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선관위 직원들의 비공개 내부 게시판에는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며 “여러 선관위 직원들이 사전 투표에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사전 투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많은 국민들도 사전 투표의 의구심을 품고 있다. 본 투표 날짜를 늘리고 사전 투표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했다.

요약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적 의혹 해소와 특검, 재선거, 사전투표 폐지를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인천광역시장 선거에서 유정복 후보와 박찬대 후보의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할 확률은 5억9000만분의 1이라고 말했다. 또한 광주, 전남 통합 시장 선거에서는 두 후보의 득표수가 똑같은 지역이 무려 10곳이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 관계자는 장 대표의 주장에 부정선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기사/뉴스요약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100일을 넘어선 가운데 휴전을 무색하게 해온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공방이 결국 이란과 이스라엘 본토 공격까지 이어졌다. 휴전 합의 이후 최악의 무력 충돌이다.

이스라엘군은 8일 엑스에서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서부와 중부의 이란 테러 정권 소속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방송은 수도 테헤란과 북서부 타브리즈, 중부 이스파한 등 여러 도시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앞으로 며칠간 계속될 것에 대비하고 있으며, 전면 전쟁 재개 가능성도 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이란도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부터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이 총 30발이며 대부분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스라엘 공군 기지에 보복 대응을 했다고 발표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선박의 홍해 항해를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상대방 본토를 겨냥 공습을 벌인 것은 지난 4월8일 미국과 이란의 협의로 휴전이 성사된 후 처음이다. 이날 공습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양측은 갈등의 원인을 상대 탓으로 돌리며 일촉즉발의 공방을 이어왔다.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양국 시민의 일상은 더 위태로워졌다. 이스라엘 전역에 사이렌이 울리며 시민들은 방공호로 대피했고, 전국 학교에 휴교령이 떨어졌다. 예루살렘과 테헤란 상공에서는 폭발음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은 다시 한번 검증대에 올랐다. 직전까지도 협상 타결을 낙관하며 구체적 날짜까지 언급했지만, 충돌이 거세지며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여러 차례 ‘중단’ 신호를 보냈고, 네타냐후 총리에게 직접 ‘공습 연기’를 촉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가 모든 결정을 내린다”는 말과 달리, 이란은 물론 이스라엘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 휴전이 깨질 위기에 처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이란 모두 즉각 휴전을 원한다. 어리석음이 방해하지 않는 한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며 양국에 교전 중단을 촉구했다. 해당 글을 게시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직후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담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레바논 남부를 포함한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될 경우 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군의 작전 중지 발표 후 이스라엘도 공격을 중단했다. 채널12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요약 :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100일을 넘어선 가운데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공방이 결국 이란과 이스라엘 본토 공격까지 이어졌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상대방 본토를 겨냥 공습을 벌인 것은 지난 4월8일 휴전이 성사된 후 처음이다. 협상 타결이 다시 불투명해지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 후, ‘어리석음이 방해하지 않는 한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설스크랩 OR 클로징멘트

기사: 북핵 '인정', 북한을 동북아 파트너로 규정한 시진핑 / 국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7년 만에 국빈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북·중 정상 만남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9개월 만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전통적 우의 관계를 넘어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시 주석이 방북에 앞서 북한 매체 기고를 통해 북한 핵을 사실상 인정하고, 북한을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한 것도 심상치 않다. 북·중관계 변화가 동북아 정세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시 주석은 이날 노동신문 1면에 실린 기고문에서 "(북·중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세계의 다극화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북·중관계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상황에 긴밀히 협력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파트너로 삼아 공동 행보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아베 신조 총리 시기의 일본을 글로벌 안보 파트너로 격상시킨 것을 연상케 하는 전략적 변화다.

시 주석이 "쌍방은 국가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견결히 지지해야 한다"고 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북한이 핵보유를 주권·안전의 문제라고 주장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 주석이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 핵을 용인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라고 선언한 상황과 맞물려 중국의 대북정책 우선순위가 비핵화보다 안보 연대로 이동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위치에 있던 중국이 입장을 바꾸게 되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북·중 간 전략적 결속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다. 중국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초를 지지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시도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문제는 현실과 이상 중 한쪽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협상의 입구로 삼아 중장기적으로 축소, 폐기로 나아가야 한다는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에 열의를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주어지기만을 기다려선 안 된다. 시 주석 방북 이후 북·중관계 변화에 면밀히 대응하는 한편 미국·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창발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준원 / 경향신문 / 260610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시진핑, 김정은에 7년 전 방북 땀 없던 감사전문 보내 “다시 만나길 기대”...북·중 관계 격상 과시	국제	
2	디자이너 퀸 진, 트랜스젠더 첫 토니상	문화	

(1)기사/뉴스요약

1박 2일의 국빈 방북 일정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 전문을 보내고 “중·조 관계는 이미 새로운 역사적 여정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2019년 6월 방북 직후에는 별도의 감사 전문을 보내지 않았다. 북·중 관계 격상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시 주석이 전날 김 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감사 전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전문에서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국가 방문이 성과적으로 끝난 것과 관련해 중국 당과 정부, 인민을 대표해 그리고 나와 나의 부인 평리위안 교수의 이름으로 총비서 동지(김 위원장)와 리설주 여사에게 그리고 조선 당과 정부, 인민에게 가장 따뜻한 인사와 가장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나와 총비서 동지가 공동으로 관심하는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일련의 중요한 공동 인식을 이룩”했다며 이는 “중·조 관계에 새로운 시대적 내용을 더해주었으며 중·조 쌍방이 전통적인 친선을 빛내이고 발전과 번영을 함께 촉진하며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나는 방문 성과에 대해 만족하게 생각한다”며 “총비서 동지와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조 친선이 대를 이어 전해지고 영원히 푸르청청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1박 2일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전날 귀국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직전 방북인 2019년 6월 당시에는 귀국 이후 이와 같은 감사 전문을 보내지 않았다. 북·중 관계 밀착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과 함께 중국에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의 감사 전문은 이날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5면 상단에도 게재됐다.

북한 매체들은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을 통해 북·중 관계가 격상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통신은 양국 정상이 “역사적인 평양 상봉”을 통해 “전통적인 조·중친선 관계를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 국가 간의 본보기적 관계로 발전시켜나가실 확고부동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했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보다 4개 면을 늘린 총 10개 면의 특집호를 발행한 노동신문은 이날 전체 6개면 중 5면에 걸쳐 시 주석 방북 관련 소식을 전했다.

요약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 일정을 마무리하며 감사 전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은 전문에서 방문 성과에 만족하게 생각한다며 중·조친선이 대를 이어 발전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주석이 지난 2019년 방문 직후와는 달리 감사 전문을 보낸 것을 두고 북·중 관계 격상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기사/뉴스요약

브로드웨이 의상 디자이너이자 사회운동가인 퀸 진이 뮤지컬 <캐츠: 더 젤리클 볼>로 토니상을 받았다. 공개적으로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인물로서는 첫 토니상 수상이다. 진은 7일 미국 뉴욕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열린 제79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캐츠: 더 젤리클 볼>로 뮤지컬 부문 의상 디자인상을 받았다.

<캐츠: 더 젤리클 볼>은 뮤지컬 ‘캐츠’를 드래그(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의상·화장·행위 등으로 정체성을 표현하는 문화예술의 장르) 스타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퀸 진은 거대한 표범 무늬 핸드백 등 액세서리를 포함해 총 500벌의 의상을 제작했다. 각각의 의상에는 트랜스젠더 운동의 선구자였던 실비아 리베라, 마샤 P 존슨 등에 대한 오마주가 새겨졌다.

2016년 뉴욕대학교에서 의상 디자인 석사 학위를 받은 그는 그 후 10년 동안 오비상, 헨리 휴스 디자인상, 드라마 데스크상, 루실 로텔상, 뉴욕 드라마 비평가협회 특별상 등 연극 디자인상을 휩쓸며 이름을 날렸다. 지금까지 의상을 디자인한 연극·공연은 80편이 넘는다. 뉴욕타임스는 “그는 로켓처럼 빠르게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진은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이자 ‘흑인 트랜스젠더 해방’이라는 단체의 설립자다. 이 단체는 매년 최대 1만5000명의 트랜스젠더 등 소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일자리 알선, 주거 지원, 상호부조 활동 등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 활동을 펼쳐왔다.

진은 이날 자신이 디자인한 드레스를 입고 시상식에 참석했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자신의 수상이 개인의 영예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들이 무대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퀴어, 트랜스젠더들의 유산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방식으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금 세계는 수많은 문제와 심각하게 싸우고 있다. 우리는 함께할 때 진정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요약 : 브로드웨이 의상 디자이너이자 사회운동가인 퀸 진이 토니상을 수상했다. 브로드웨이 의상 디자이너이자 사회운동가인 퀸 진은 공개적으로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인물로서는 첫 토니상에 이름을 올렸다. 퀸 진은 뮤지컬 ‘캐츠’를 드래그 스타일로 재해석한 뮤지컬 <캐츠: 더 젤리클 볼>에서 총 500벌의 의상을 제작했다. 진은 수상 소감에서 자신의 수상이 개인의 영예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들이 무대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순환매	어떤 종목에 호재가 발생해서 투자자가 몰려 주가가 상승하면, 그 종목과 관련있는 종목도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순환적으로 매수를 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이를 순환매라 한다	시사경제 용어사전
2	마나피카 후마니타스	교황 레오 14세가 즉위 후 처음으로 발표한 회칙으로, 인공지능(AI) 시대에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핵심 주제로 하고 있다.	시사상식사전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준원 / 경향신문 / 260611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교육감 선거 '득표수 누락' 전북선관위, 위원장에 나흘 뒤에야 '능력 보고'	정치	
2	중동 불안에 AI주 차익실현, 인플레 우려까지...나스닥 2%↓	경제	

(1)기사/뉴스요약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1개 투표소의 개표 결과 누락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도 선관위원장에게 나흘 뒤에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유의 사태에도 상황 인식이 안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선관위는 지난 3일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제1투표소의 전북교육감 투표 결과가 누락된 사실을 이틀 뒤인 지난 5일 파악했다. 개표가 마무리되고 선거 결과가 이미 나온 상황에서 중대 오류를 확인한 것이다. 현장 투표관이 중화산동 제3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제1투표소 개표 결과로 잘못 입력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 투표 상황을 기록하는 투표록 내지에 제3투표소를 제1투표소로 오기한 상태로 개표가 이뤄졌다. 그 결과 제1투표소에서 실제 투표한 유권자 1104명의 투표 결과가 개표 집계에서 빠졌다.

전북도선관위는 투표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두 개 투표소의 투표 결과가 동일한 것을 보고 뒤늦게 경위 파악에 나섰다. 개표 누락 사실을 알게 됐다. 전북도선관위는 지난 5일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으나 전북도선관위원장은 지난 9일에야 실무진에게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업무 처리도 있고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하느라 지난 9일 보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에도 보고 단계가 있다”며 보고서를 작성·수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선관위 측은 ‘중대한 오류에도 보고가 지연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다 답변드렸다”고 했다.

전국 각지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 관리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전북도선관위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정권자인 전북도선관위원장의 현안 파악이 늦어지며 제때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해 선거 관리의 공정성 문제를 더 키웠다는 것이다. 전북도선관위는 전날 언론 보도로 집계 오류 사실이 처음 알려지기 전까지 외부에 이를 공표하지도 않았다. 교육감 후보자들도 오류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 집계 오류로 누락된 투표수가 전북교육감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었지만, 초유의 사태로 선관위 불신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요약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결과 누락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도 나흘 뒤에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투표관이 중화산동 제3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제1투표소 개표 결과로 잘못 입력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업무 처리도 있고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하느라 보고가 늦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기사/뉴스요약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인공지능(AI) 반도체·기술주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10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53.33포인트(1.87%) 내린 4만 9918.7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19.66포인트(1.62%) 내린 7266.9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509.32포인트(1.98%) 내린 2만5169.50에 각각 마감했다. 뉴욕증시는 AI 관련주 고평가 우려에 이어 중동발 악재가 터지면서 3주 만에 첫 이틀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최근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와 AI 관련 종목들이 다시 큰 폭으로 내리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3.4% 하락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7% 떨어졌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6% 내렸다. 특히 AI 서버 제조사 슈퍼마이크로컴퓨터(SMCI)는 부품 구매 자금 조달을 위해 70억달러 규모의 주식 발행 계획 발표 이후 23.1% 폭락했다. 오는 12일 예정된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주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동 정세 불안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 밤사이 이란과의 교전을 언급하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이날 ‘이란을 더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강력 맞대응 방침을 밝히며 위기감이 커졌다. 양국 충돌 우려에 국제유가는 상승했다.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1.80% 오른 배럴당 93.10달러에, 7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2.07% 오른 90.0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오전 발표된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역시 시장의 인플레이션 경계심을 자극했다. 미국 5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4.2% 올라 3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9% 오르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으나, 유가 상승으로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말까지 최소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자산 가격에 선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 증시가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인공지능 주식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 인플레이션 경계심 증가로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다우존스30은 1.87% 하락했고, S&P500은 1.62%, 나스닥 종합지수는 1.98% 하락했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2%올라 3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중동 정세 불안도 다시 격화되며 국제유가가 상승 마감했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근원 CPI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항목을 제외해 산출한 물가 지표를 뜻한다.	
2	빈볼	빈(Bean)은 미국에서 사람의 머리를 가리키는 은어로, 투수가 타자의 머리를 향해 의도적으로 던지는 공을 가리키는 말이다.	야구상식사전

●사설스크랩 OR 클로징멘트

기사: 부정선거 선 그은 대학생들의 6·10 시국선언 / 정치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1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국가 기본권 침해 구제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 참여형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민주화 이후 사회적 발언과는 거리를 두어온 대학생들이 이처럼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드문 일이다.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로 일부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침해당했다. 이 중대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이들의 요구는 상식적이고 타당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는 해법의 큰 줄기 또한 이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여야는 지난 9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고, 검찰·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경 수사로 부족하면 특검을 도입하고,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데도 여야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런데도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은 대학생들이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대내외에 공표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사태가 불거진 뒤 지난 일주일간 분출한 대학생들의 규탄 목소리를 학생 대표기구인 총학생회가 공식적으로 대의해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본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극우적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들이 발표한 시국선언은 부정선거론, 계엄옹호론 등 비상식적 주장과 선을 긋고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재발방지책 마련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환기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날은 6·10 민주항쟁 39주년이다. 총학생회들이 이날 시국선언을 발표한 건 민주화의 전환점이 된 1987년 그날의 상징성도 감안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참정권은 절대 침해돼선 안 될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시민들이 윤석열의 12·3 내란을 목숨 걸고 막은 것도 참정권을 포함한 시민들의 정치적·사회적 권리 일체를 박탈하려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최소요건이다. 여기에 더해 시민 누구도 차별·배제·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더 깊고 넓은 공론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준원 / 경향신문 / 260612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황인범, 동점골에 역전골 어시스트까지...한국, 체코 2-1 제압 32강 '예약'	스포츠	
2	정청래 대 김민석, 이번에도 '당심 대 의심' 구도일까	정치	

(1)기사/뉴스요약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체코와 1차전에서 황인범(페예노르트)과 오현규(베식타시)의 연속골에 힘입어 2-1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에서 1골 부족한 2위로 올라섰다.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준비한 전술이 잘 맞아 떨어졌다. 이날 체코는 예상대로 장신군단으로 선발을 꾸렸다. 측면 수비수인 블라디미르 초우팔과 공격형 미드필더 파벨 슐츠 두 선수만 170cm대의 작은 선수일 뿐 나머지는 190cm을 넘거나 근접하는 큰 선수가 출전했다. 주전 선수들의 평균 신장만 188cm. 한국(182cm)과 비교하면 큰 차이였다. 그러나 그 차이가 오히려 한국이 공격을 풀어가는 돌파구였다. 상대의 느린 발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조금씩 공세에 박차를 가했다. 선봉장으로 나선 손흥민(LAFC)이 공을 잡을 때마다 상대 수비가 흔들렸다. 득점을 기대할 만한 찬스를 놓친 게 아쉬웠다. 손흥민은 전반 39분 역습 찬스에서 왼발슛이 골대 옆을 스쳐갔고, 전반 45분에는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찬스를 잡았지만 미끄러지며 슈팅 기회를 놓쳤다. 손흥민은 후반 11분 이재성(마인츠)의 침투 패스에 이은 슈팅까지 골키퍼에게 가로 막혔다. 득점 찬스를 살리지 못하니 위기가 찾아왔다. 21세기의 또 다른 대세로 떠오른 롱스로인이 문제였다. 후반 14분 오른쪽 측면에서 날라온 롱스로인을 놓친 사이 체코의 '캡틴'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올버햄프턴)에게 선제 헤더골을 내줬다.

황인범이 수렁에 빠질 뻔한 위기의 해결사였다. 황인범은 후반 22분 후방에서 연결된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롱패스를 잡아챈 뒤 골키퍼를 속이는 로빙슛으로 골문을 갈랐다. 느릿한 포물선을 그린 공이 떨어지면서 승부는 원점이 됐다. 크레이치가 마지막까지 걷어내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황인범은 후반 35분 추가골까지 도왔다. 황인범은 오른쪽 측면까지 달려든 뒤 골문을 향해 쇄도한 오현규에게 날카로운 크로스를 배달했다. 손흥민 대신 교체 투입된 오현규는 강렬한 왼발슛으로 골키퍼의 손까지 밀어내면서 결승골을 책임졌다. 4년 전 카타르 월드컵에서 등번호 없는 예비 선수였던 오현규가 꿈꾸던 첫 득점이자 한국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은 김승규가 체코의 반격을 막아내는 두 차례 선방쇼까지 벌이면서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다.

요약 :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체코를 상대로 첫 경기를 치른 홍명보호가 2-1로 승리했다. 대표팀은 후반 14분 체코의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에게 선제 헤더골을 내줬다. 그러나 후반 22분 황인범이 로빙슛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오현규가 후반 35분 추가골로 역전에 성공했다. 이후 골키퍼 김승규가 두 차례 선방쇼를 벌이며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다.

(2)기사/뉴스요약

오는 8월17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간 맞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지난번 전당대회처럼 당심(당원 표심) 대 의심(국회의원 표심)의 구도가 재현될 지 관심이 모인다. 연임 도전이 유력한 정 대표는 벌써 1인1표제를 강조하는 등 당심 잡기에 나섰다. 김 총리 측은 명심(이재명 대통령 의중)이 총리에 있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의심뿐만 아니라 당심도 쏠릴 것으로 기대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방정식을 다시 가동하는 모양새다. 정 대표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당심에 기대 박찬대 의원에게 압승을 거뒀다. 당시 정 대표는 55%가 반영되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66.5%를 얻었는데 15%가 반영되는 국회의원 등 대의원에서 53.1%를 획득한 박 의원을 여유 있게 제쳤다. 당심이 의심을 누른 선거로 평가됐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인 1표제에 대한 당내 이견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1인 1표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밝혔다. 1인1표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반영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 2월 당헌당규 개정으로 도입됐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포함 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대표를 선출한다. 정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계파 보스, 낙하산에 의해 줄타기해 공천받던 시대를 마감한 것이 노무현 시대의 정치개혁”이라며 “그것이 1인1표, 당원주권 시대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같은 날 시도당·전국위원장 선출 방식을 1인1표제로 바꾸도록 당규를 개정했다. 또 자신의 지지자들이 주축인 판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올려 당원들 요구대로 “의원총회 생중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당심을 자극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김 총리는 일단 의심에서 앞선다고 본다. 실제로 친명계 의원 상당수는 김 총리 지원 사격에 나설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러 공식회의 석상에서 김 총리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만큼 지난해 전당대회보다 의심의 쏠림이 있을 것으로 김 총리 측은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번 전당대회가 당심 대 의심 구도가 재현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당대표를 바꿔야겠다는 신호를 줬기에 이번 선거는 의원들(대 당원들) 구도가 아니다”라며 “정 대표가 의지할 데가 강성 유튜브 이런 데 말고는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친명계 초선 의원은 “다수 의원이 모여 (후보가) 대세임을 보여주는 모양새는 당원들에게 어떠한 감동도 없다”며 “정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를 부각하며 (김 총리는) 당원들에게 다가가는 후보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반면 친정청래계에선 “의원들이 세 과시하는 것에 당원들이 반감이 있다”고 했다.

전당대회 승패를 두고도 전망이 엇갈린다. 한 중진 의원은 “당원들이 크게 영향받는 유튜브 지형으로 보면 정 대표의 당원 지지세가 만만찮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의원들의 숫자로 판가름난 적이 없다”면서도 “당원들이 알아차릴 때까지 (대통령이 메시지를 발신)하겠다는 것이 지 않나. 지방선거 책임론까지 일면서 정 대표가 어려워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두 달 뒤에도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전당대회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약 : 8월17일에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 대통령 의중이 총리에 있는 점이 확인된 만큼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간 맞대결이 예상되며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당심을 자극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는 친명계 의원 상당수의 지원 사격이 예상되며 높은 득표율이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사설스크랩 OR 클로징멘트

기사: 선거관리 믿기 힘든 총체적 부실, 낱낱이 파헤치고 책임 물어야 / 정치

6·3 지방선거 관리가 투표용지 부족은 물론 선거인명부 누락, 개표 결과 중복 반영 등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관리 시스템이 이런 지경이었다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의미에 회의가 들 정도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당일에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서울 14곳이라더니 이후 전국 50곳으로, 다시 91곳으로 정정했다. 이 중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가 26곳에 달한다. 선관위가 선거 준비 부족만이 아니라 사후 현황도 제대로 집계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다. 투표용지 인쇄량이 유권자 수의 절반이 안 되는 투표소는 1371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이 선관위원 회의도 거치지 않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췄는데, 그마저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중복 청주시 성화개신죽림동의 한 투표소에선 선거인명부 누락으로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고,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에선 1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3투표소 개표에 반영됐다. 전북선관위는 이 사실을 지난 5일야야 인지했고, 나흘 뒤인 9일야야 전북선관위원장에게 보고했다. 투표 준비, 투표소 운영, 긴급 상황 대응, 개표에 이르기까지 선거관리의 총체적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 기본권인 참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여서 인력 부족, 단순 행정 실수 같은 변명이 성립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0일 첫 회의를 열고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했다. 진상규명위가 외부 인사로 구성됐다고 하지만 사태의 본질적 책임이 있는 선관위 자체 조사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경찰은 11일 중앙선관위·서울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국회는 이날 국정조사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등 진상 파악을 위한 본격 절차에 돌입했다. 사법당국과 국회는 이번 선거 시작부터 끝까지의 관리실태를 낱낱이 파헤쳐 그 진상을 국민 앞에 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 부실 선거관리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국가선거 시스템을 재설계한다는 각오로 선관위의 운영 방식과 선거관리 체계를 바닥부터 뜯어고쳐야 한다.